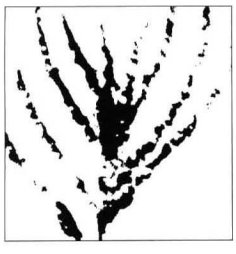
'이정표' 이자 '잣대' 이자 '문화유산' 으로서의 도감

글_황영심(프리랜서 도감 기획자·전 현암사 도감 기획)



처음 보는 풀꽃이나 나무, 곤충, 나비, 새를 보았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도감을 떠올리게 된다. 마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는 것처럼. 도감을 펼치면 내가 찾던 풀, 나무, 곤충, 나비, 새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종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사는 곳과 생김새는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내가 찾던 자주색 풀꽃이 매발톱꽃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대개 바로 아래에 하늘색 꽃이 피는 하늘매발톱, 노란 꽃을 피는 것은 노란매발톱 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친척이라는 사실도 덤으로 알게 된다. 또한 나비도감을 보게 되면 흔히 알고 있는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외에도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청띠신선나비 등 예쁜 이름의 나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토착하는 나비는 252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도감에는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산과 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나 세밀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도감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곤충이 살고 있는 자연의 세계로 한걸음 발을 옮겨 놓게 하는 아주 기본적이며 방대한 지식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도감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도감圖鑑: 〔명사〕 동류同類의 차이를 한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그림을 모아서 설명한 책. 도보圖譜." 다시 말하자면 도감이란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사물의 진면목을 글과 그림 혹은 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도감은 무엇일까. 나는 이집트 벽화와 〈사자들의 서〉를 들고 싶다. 당시의 생활상을 상형문자와 그림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이집트 벽화와 죽은 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그림이 담긴 〈사자들의 서〉야말로 도감의 기원이란 생각이다. 더 거슬러 가자면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 벽화도 도감의 기원이 아닐까. 호모사피엔스들이 무언가 그림으로 정보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도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감은 이집트 벽화처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인물풍속도가 있고 더 거슬러 가자면 울산의 반구대 그림도 도감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로 내려와서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 때의 기록과 그림을 담은 〈원행을묘정리의궤〉도 도감의 한 형태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대적인 도감과 같은 형태의 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200여 년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처럼 글로만 씌어진 백과사전이 있을 뿐이다.

현대적인 도감은 구한말 일본인들이 한국의 동식물조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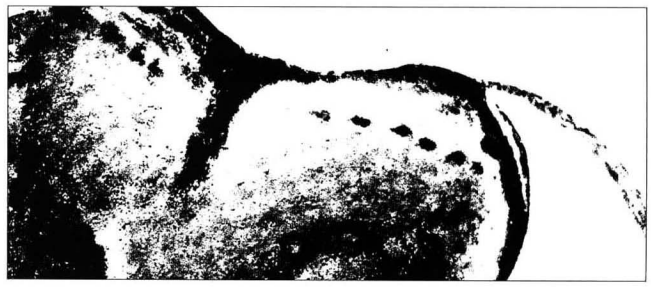
하고 발표한 도감들이 있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출생하여 신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학자들이 야책野冊을 메고 전국을 누비며 조사한 동식물들에 대한 표본을 자료로 동정을 담은 도감들이 출간되는데 1929년 조복성 박사가 일본인과 함께 출간한 나비도감 《원색조선접류》가 최초의 도감이다. 이후 1957년, 1958년 초본과 목본으로 나누어 출간한 정태현 박사의 《한국식물도감》을 필두로 많은 도감이 출판된다.

다른 도감들도 그렇겠지만 동식물 도감의 경우 특히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산천을 걸어 다니며 동식물을 수집하고 채집한 자료를 토대로 나온 인고의 산물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선뜻 맡아줄 출판사가 없어 독지가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자비로 출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 이유는 방대한 분량과 사진과 세밀화가 들어가야 하는 책이므로 제작비용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도감 출판의 역사는 이어져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자연도감 출판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도감 출판을 하나의 큰 사업의 출발로 시작하는 출판사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출간된 도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먼저 도감은 해당학문으로의 여행을 위한 지도이며 이정표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맨 처음 식물도감이나 곤충도감 새도감을 통해 내가 관찰한 동식물의 이름을 확인하고 서식지와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점차 자연과 생태학에 친숙하게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도감이야 말로 해당 학문으로의 관문이며 해당 학문으로 찾아가게 하는 지도며 이정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바다 어류도감》을 펴낸 저자 중 한사람인 명정구 박사도 중학교 때 부산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베도라치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고서점까지 뒤지며 도감을 찾아본 것이 계기가 되어 해양생물학 박사가 되었다고 한다.

둘째 도감은 그 시대의 학문과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 도감출판은 그 시대를 표상하는 사물이나 자연에 살아가는 생물의 치밀한 조사를 하고 분류, 기록한다는 문화, 과학적인 측면과 일러스트와 사진을 담은 미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리고 당대의 인쇄기술이 낳은 출판문화의 정수라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도감출판이야말로 A일보의 기자가 어떤 글에서 한 말처럼 수북이 쌓인 신간들 틈에서 한쪽으로 재껴두는 무겁고 두꺼운 책이 아니라는 재평가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출판평론가 표정훈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책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책, 그 책이 없으면 한 사회의 문화적, 지적 풍경의 한 자락이 비어 버리는 책, 독자들의 눈길, 손길과 자주 만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서관과 서점의 서가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책' 이 아닌가.

셋째 도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이다. 도감은 식물, 동물, 곤충, 새 등 우리와 함께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하는 책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다. 자연환경의 변화로 사라져가는 포유동물, 새, 물고기, 곤충, 풀, 나무를 보존하는 운동도 해야 하지만 기록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도감은 더욱 필요한 책이며 교육적 문화적 의미도 분명해진다. 또한 도감을 많이 보는 아이들일수록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커지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은 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식도 점차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도감은 무수한 사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이나 생태 그리고 해부도까지 구조적으로 보여 주는 백과사전의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깊이를 가진 도감이 더 많이 출간되어야 한다. 식물도감을 예를 들자면 선태식물도감, 양치식물도감, 콩과식물도감 하는 식의 다양하고 세분화한 도감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일반인이나 아이들이 쉽게 사서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현 그리고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넣은 도감도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도감의 형식은 책을 바탕으로 CD-ROM이나 웹, 모바일 정보로도 많이 출시되어 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형식으로 도감이 다양하게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쉽게 활용된다면 좋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도감출판이란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자와 출판사,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 편집자, 제작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고 다양한 도감이 출간된다면 그 책들을 통해서 동식물자원을 발전시키는 힘,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힘이 나오고 나아가 도감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솟아나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